

##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김 인 석<sup>†</sup>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 연 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Cooper 등이 제안한 음주 동기모형에 근거하여 음주 및 음주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인석 등(2001)이 Data mining을 통해 도출한 아홉 개 변인(성격(외향성, 새로운 경험추구, 불안, 적대감), 주변인의 영향(가족, 친구), 음주 동기(고양, 대처, 사교)-에 대한 중재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음주동기를 최종경로로 하는 다섯 개의 연구모형을 가정하였으며, 개별 모형에 대한 부합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절차에 따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모형의 타당성은 중다 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격이 주변인의 음주영향과 음주동기를 경유하고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통해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그리고 최종모형은 남성과 여성, 대학생, 일반성인 및 음주운전자에게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일상생활 내에서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상대적 기여도와 그 인과적 관계성을 규명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개별 요인의 시간경과에 따른 설명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 음주문제, 공변량 구조분석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인 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42 부림빌딩 2층  
E-mail : inseok.kim@samsung.com

알코올 사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생물학적 취약성으로부터 심리사회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탐색되고 설명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음주의 동기모형은 음주동기를 중심으로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Cox & Klinger, 1988; 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Cox와 Klinger에 의하면, 음주동기는 알코올 사용의 가장 근접한 결정요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유인자극과 그에 따른 부적 및 정적 정서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와 목적, 즉 음주동기는 성격, 사회문화적 배경, 알코올 사용 경험, 알코올 효과기대, 부적 및 정적 유인자극과 같은 배경적 요인과 현재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Cooper와 동료들(1988; 1992; 1995)이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Cooper 등(1995)은 알코올 사용의 최종 공통경로로서 음주동기를 가정하고 그에 선행하는 성격, 대처유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음주 및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인과적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음주의 동기모형에서도 기존 알코올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측정변인간의 관계성,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모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Barbor, Flunente, Saunders & Grant, 1992; Cloninger, 1987; Sher, Trull, Barhlow & Vieth, 1999).

Cooper 등(1995)이 논의하고 있듯이, 음주의 동기모형은 음주행동을 정적 및 부적 정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그 관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음주동기의 선행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는 부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은, BSI(Brief Symptom Inventory; Derogatis & Melisaratos, 1983) 우울척도

만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에 제한이 따르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적 및 부적 정서성 차원에서 고양동기와 대처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대처동기만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며, 연구에 따라 고양동기(McCarty & Kaye, 1984)와 사교동기(박영숙, 표미자, 김정선, 1995; 신행우, 1998)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처동기를 제외한 다른 음주동기와 알코올 사용간의 차별적 관계는 술을 마시는 이유와 형태가 사회규준이나 태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박영숙 등, 1995; 신행우, 1998; Curran, White & Hansell, 1997)에 근거할 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모집단의 특성이 달리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를 각기 다른 개인 내적 및 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아무런 여과없이 일반화시킬 수 없으며, 음주 및 음주문제의 선행요인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개별 변인과 변인간의 조합에 따른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하여 그 관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석 등(2001)은 음주동기가 알코올 사용과 그 결과에 이르는 최종 공통경로라는 음주의 동기모형에 근거하여 선행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위험요인과 심리적 및 인구통계적 취약성 요인을 가정하고 이들 변인이 실제 음주 및 음주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최근 3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598명을 대상으로 모두 스물 다섯 개 변인의 설명량을 Data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홉 개 변인-성격(외향성, 새로운 경험추구, 불안, 적대감), 주변인의 영향(가족, 친구), 음주동기(고양, 대처, 사교)이 음주 및 음주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 연구(신행우, 1998; 탁진국, 2000; Chassin, Pillow, Curran, Molina & Barrera, 1993; Curran, White & Hansell, 1997; Schuckit, 1998; Stacy, Newcomb & Bentler, 1992)와 음주의 동기모형에서도 이들 변인은 음주동기를 최종경로로 하여 그 위계적 관계성을 가정하고 있다. 즉, 성격이 음주 및 음주 문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변인의 영향과 음주동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인석 등(2001)의 연구에서도 성격, 주변인의 영향 및 음주동기와 음주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신경망 분석(Neural connection)을 통해 이들 변인이 비선형 즉, 곡선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음주 및 음주문제가 특정 변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김인석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아홉 개 측정변인을 중심으로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 문제에 가장 근접하는 최종 공통경로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그 인과적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최근 3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음주경험이 있는 대학생 212명, 일반 성인 238명 및 음주운전자 148명으로 총 598명(여성 240명, 남성 358명)이다. 평균연령은 30.27(±8.81)세이다.

### 측정도구

####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EPs II부)

음주자의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Eysenck Personality Scale-Adult(EPs) (Eysenck & Eysenck, 1991)를 우리 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EPs II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정신병적 경향성(P), 외향성-내향성(E), 신경증적 경향성(N), 허위성(L)을 측정하며, 각 척도마다 12문항씩 모두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이하 생략)는 정신병적 경향성 .64, 외내향성 .78, 신경증적 경향성 .78, 허위성 .78이다.

#### 3차원 성격검사(TPQ 단축형)

3차원 성격검사-단축형(신행우, 1998) 46문항 중 음주자의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상의존성 차원을 제외한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회피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새로운 경험추구 .82, 위해회피 .90이다.

####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93)의 아홉 개 차원 중 우울(DEP) 13문항, 불안(ANX) 10문항 및 적대감(HOS) 6문항, 총 29문항을 사용하여 음주자의 음주와 관련한 부적 정서성을 평가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우울 .89, 불안 .86, 적대감 .68이다.

#### 주변인의 영향

Windle(1996)과 Cumsille 등(2000)이 사용한 주변인의 음주비율 측정법을 적용하여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문항은 가족과 친구 및 직장동료를 구분하여 총 4문항이며, 내적 일치도는 가족의 음주영향 .85, 친구 및 직장동료의 음주영향 .79이다.

#### 음주동기 척도

음주동기 척도는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

기모형에 따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언어보고 자료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과 Cooper(1994)의 동조동기 문항에 기초하여 신행우(1998)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양, 대처, 동조 및 사교의 네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음주동기는 4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다. 내적 일치도는 고양동기 .83, 대처동기, .93, 동조동기 .81, 사교동기 .87이다.

####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UDIT-K)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Babor, Fuente, Saunders & Grant, 1992)를 변안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문항은 위험한 알코올 사용 3문항, 알코올 의존 증후군 3문항, 유해한 알코올 사용 4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내적 일치도는 알코올 위험사용 .77, 알코올 유해사용 .80, 알코올 의존 .82이다.

#### 음주문제척도

신행우(1998)가 제작한 것으로서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 및 사회 기능 손상 6문항, 행동 문제 10문항,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7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내적 일치도는 직업 및 사회 문제 .88, 행동문제 .84,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79이다.

####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성격과 주변인의 영향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두 변인에 대한 중재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을 중심으로

추론 가능한 연구모형을 비교하고 그 모형을 대상으로 특정 경로의 수정과정을 포함한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모형은 남성과 여성 음주자, 대학생, 일반성인 및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중다 집단 비교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검증에 이용한 변인간의 상관행렬을 구하고 중재적 회귀분석과 Arbuckle(1997)의 AMOS 3.61 버전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chi^2$  차이검증치(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SCDT), 일반부합치(goodness-of-fit index; GF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간명성부합치(parsimony fit index; PFI), 근사 평균오차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이다. GFI와 CFI는 보통 0과 1사이에 있으며 그 값이 .90보다 크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부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부합도 그리고 .10보다 작으면 보통수준을 의미한다(Brown & Cudeck, 1993).

## 연구결과

### 모형검증에 이용한 변인간의 관계

김인석 등(2001)의 연구에서 도출된 아홉 개 변인 즉, 새로운 경험추구와 외내향성(행동통제 부족), 불안과 적대감(부적 정서성), 가족과 친구의 영향(주변인 영향) 그리고 고양 대처 및 사교 동기(음주동기)가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 문제 1)와 음주 심각성(음주 문제 2)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변인이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표 1. 모형검증에 이용한 변인간의 상관행렬(N=59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친구영향	1.00														
2. 가족영향	.20	1.00													
3. 외내향성	.05	.03	1.00												
4. 경험추구	.05	.10	.07	1.00											
5. 불안	.07	.08	-.17	.13	1.00										
6. 적대감	.06	.07	-.12	.17	.76	1.00									
7. 고양동기	.23	.23	.08	.10	.18	.15	1.00								
8. 대처동기	.17	.18	-.02	.14	.26	.21	.56	1.00							
9. 사교동기	.17	.21	.20	.12	.08	.05	.57	.35	1.00						
10. 위험사용	.34	.26	.10	.09	.11	.06	.48	.39	.48	1.00					
11. 유해사용	.29	.20	.07	.22	.20	.18	.32	.34	.28	.52	1.00				
12. 알콜의존	.29	.22	.03	.21	.21	.18	.36	.32	.30	.53	.64	1.00			
13. 직업사회	.30	.18	.06	.29	.21	.16	.33	.28	.24	.46	.23	.57	1.00		
14. 행동문제	.25	.14	.06	.16	.22	.27	.27	.34	.17	.37	.53	.43	.57	1.00	
15. 가족대인	.26	.16	.05	.20	.22	.24	.33	.35	.24	.46	.63	.54	.63	.80	1.00
평균	5.06	3.13	47.5	6.11	46.5	45.9	9.67	9.92	12.8	5.95	1.71	1.51	3.06	2.33	2.24
표준편차	3.01	2.67	8.37	3.79	9.35	7.95	3.11	3.72	2.81	2.82	2.11	1.83	3.41	3.66	3.12

주)  $|r| \geq .080$  이면,  $p < .05$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 구성과 관련한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변량 행렬(covariance matrix)보다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모형검증에 이용한 변인간의 상관행렬이다.

표 1에 제시한 변인은 개별문항이 아닌 하위 척도 점수 또는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자료의 정상성 가정을 확인하였다(이순목, 1990). 단일표본 Kolmogorov-Smirnov 검증을 실시한 결과, K-S의 Z값 범위가 .57에서 2.13으로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를 측정하는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는 개별 측정변인의 정상성과 다원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가중 최소자

승법(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 UL)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개별 측정변인간의 이론적 관계와 Data mining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정한 모형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부가하여 선행연구(김인석 등, 2001)에서 음주동기와 더불어 가족 및 친구의 음주행동으로 측정되는 주변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이들 변인이 성격이나 음주동기에 의해 조절되거나 매개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Chassin *et al.*, 1993; Cumsille, Sayer & Graham, 2000; Stacy *et al.*, 1992). 따라서 위험요인으로서 주변인의 영향이 취약성 요인으로서 성격과 상

호작용을 통해 음주동기를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변인의 영향이 중재효과(moderating effects)를 갖는다면, 연구모형은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으로 구성된 성격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면, 알코올 사용의 취약성 성격과 주변인의 음주영향으로 이루어진 음주환경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때 음주동기가 촉발된다는 연구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격의 네 가지 측정변인과 친구 및 가족의 영향을 합산한 주변인의 음주영향을 투입한 후, 두 변인간의 교차항을 투입함으로써 음주동기를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중재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주변인의 영향에 관한 중재적 회귀분석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Delta R^2$	$\Delta R^2$	$\Delta R^2$
새로운 경험 (1)	.021*	.016*	.010*
주변인의 영향 (2)	.046**	.054**	.083**
1×2	.006	.000	.000
외내향성(1)	.000	.038**	.007
주변인의 영향 (2)	.053**	.054**	.085**
1×2	.000	.000	.000
불안(1)	.071**	.007*	.033**
주변인의 영향 (2)	.042**	.056**	.079**
1×2	.000	.000	.000
적대감(1)	.071**	.007*	.033**
주변인의 영향 (2)	.000	.000	.000
1×2	.042**	.056**	.080**

\*  $p < .05$ , \*\*  $p < .0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적대감과 주변인 영향의 교차항을 보면,  $\Delta R^2$ 값이 대처동기 .042, 사교동기 .056, 고양동기 .080으로 모두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적대감을 제외한 성격변인과 주변인의 영향이 음주동기를 설명한 후에 그 교차항을 투입한 경우에는 음주동기의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 및 주변인 영향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격이 주변인의 영향을 통해 음주동기를 촉발함으로써 음주문제 1과 2에 이르는 경로를 기본모형으로 가정하고, 기본모형에서 성격이 음주동기 및 음주 심각성(음주문제2)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연구모형을 비교하였다.

####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에 사용한 변인은 행동통제 부족, 부적 정서성, 주변인의 음주영향과 음주동기를 외생변인으로,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음주문제 1과 음주문제 2를 내생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여섯 개 잠재 변인 중 외생변인에서 아홉 개와 내생변인에서 여섯 개로 측정되는 열 다섯 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에 이용한 여섯 개 잠재 변인과 열 다섯 개 관찰변인을 제시한 것인데, 좌측은 외생변인으로서 독립 잠재변인이며, 우측은 내생변인으로서 종속 잠재변인이다.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총 다섯 개 연구모형을 가정하였으며, 알코올 사용의 선행 요인 중 하나인 성격의 하위 잠재변인으로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의 상관을 가정하고 이들 변인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노출될 때 고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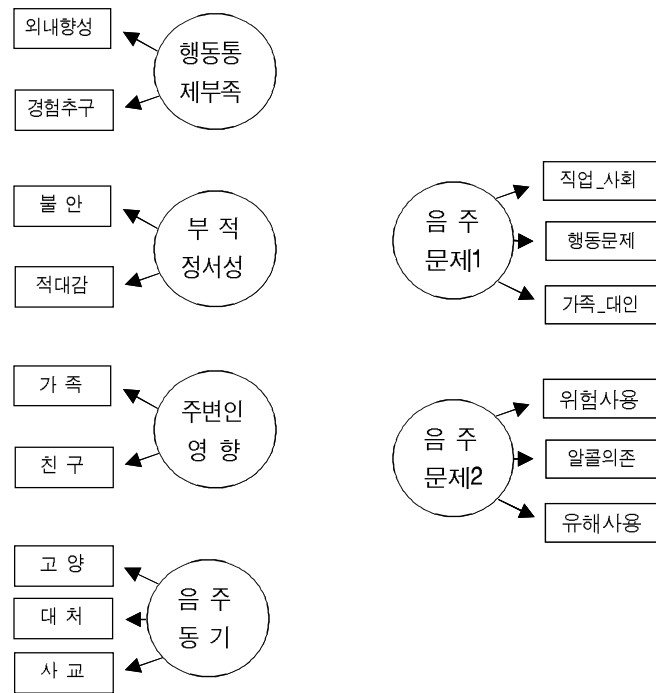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에 이용한 잠재변인과 관찰변인

처, 사교와 같은 음주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와 음주 심각성(음주문제 2)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기본모형으로 하였다. 음주 및 음주문제의 기본모형은 연구모형 1로 지칭하였다.

연구모형 1은  $\chi^2$  값이 자유도를 훨씬 초과하고 ( $df=85$ ,  $\chi^2=266.400$ ), 일반부합치( $GFI=.878$ )와 비교부합치( $CFI=.862$ )가 추천 준거인 .9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절대적 부합치의 일종인 근사 평균오차 제곱근(RMSEA)도 .092로 보통수준이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연구모형 1이  $\chi^2$  값과 부합도 지수 모두에서 적합한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격이 주변인의 영향을 통해 음주동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

접적으로 음주동기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 2를 가정하였다. 연구모형 2는 두 개의 경로를 추가한 만큼 자유도가 85에서 83으로 감소하였다. 측정결과, 연구모형 2는 기본모형으로 가정한 모형 1에 비해 다소 우수하였으나 부합도 지수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df=83$ ,  $\chi^2=244.169$ ,  $GFI=.884$ ,  $CFI=.869$ ,  $RMSEA=.090$ ). 그런데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가 등지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기 때문에 미지수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합도 지수의 상승을 비교하였다(Williams & Podsakoff, 1989).

측정결과 연구모형 1과 2의 자유도 차이 ( $85-83=2$ )에 따른  $\chi^2$  임계역은 .05수준에서 5.99로 두 모형간의  $\chi^2$  차이값( $266.400-244.169=22.231$ )이 더 크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자유도가 적은 연구모형 2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비교부합치(CFI)의 차이(.869-.862=.007)에서도 모형 비교의 기준치인 .0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 1보다 연구모형 2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연구모형 3은 연구모형 2의 경로에서 성격의 잠재변인인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음주동기를 통해 음주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주문제 2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3의 부합도 지수는  $df=81$ ,  $\chi^2=306.223$ ,  $GFI=.874$ ,  $RMSEA=.101$ 로서 선행모형인 연구모형 2의 부합도를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즉, 연구모형 3의 절대적 부합도 지수와 비교할 때, 연구모형 2의 GFI와 RMSEA 값이 각각 .884와 .090으로서 상대적으로 부합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3에서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음주문제 2로부터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인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4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 4는 연구모형 3의 부합도 지수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음주문제 2의 영향도 또한 증가하여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 기본모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 2와 3보다 우수하였다( $df=80$ ,  $\chi^2=134.966$ ,  $GFI=.916$ ,  $RMSEA=.068$ ). 즉, 연구모형 3과 4의 자유도 차이( $81-80=1$ )를 기준으로  $\chi^2$  차이값( $306.223-134.966=171.257$ )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근사 평균오차 제공근(RMSEA)이 .068로 괜찮은 부합도의 기준인 .08수준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모형 3에 비해 부합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알코올 사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Hawkins *et al.*, 1992; Levenson *et al.*, 1987; Sher *et al.*, 1999; Stacy *et al.*, 1991). 따라서 연구모형 4에서 성격의 두 잠재변

인이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5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5의 부합도 지수는  $df=78$ ,  $\chi^2=130.001$ ,  $GFI=.911$ ,  $CFI=.912$ ,  $RMSEA=.082$ 로서 연구모형 4와 비교할 때,  $\chi^2$ 값, 일반부합치(GFI), 비교부합치(CFI) 및 RMSEA 모두 낮았다. 또한 이들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 $80-78=2$ )를 기준으로  $\chi^2$  차이값( $134.966-130.001=4.965$ )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한  $\chi^2$ 임계역인 5.99보다 작았다. 그리고 연구모형 5의 근사 평균오차 제공근(RMSEA)이 .082로 괜찮은 부합도의 기준인 .08수준을 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모형 4의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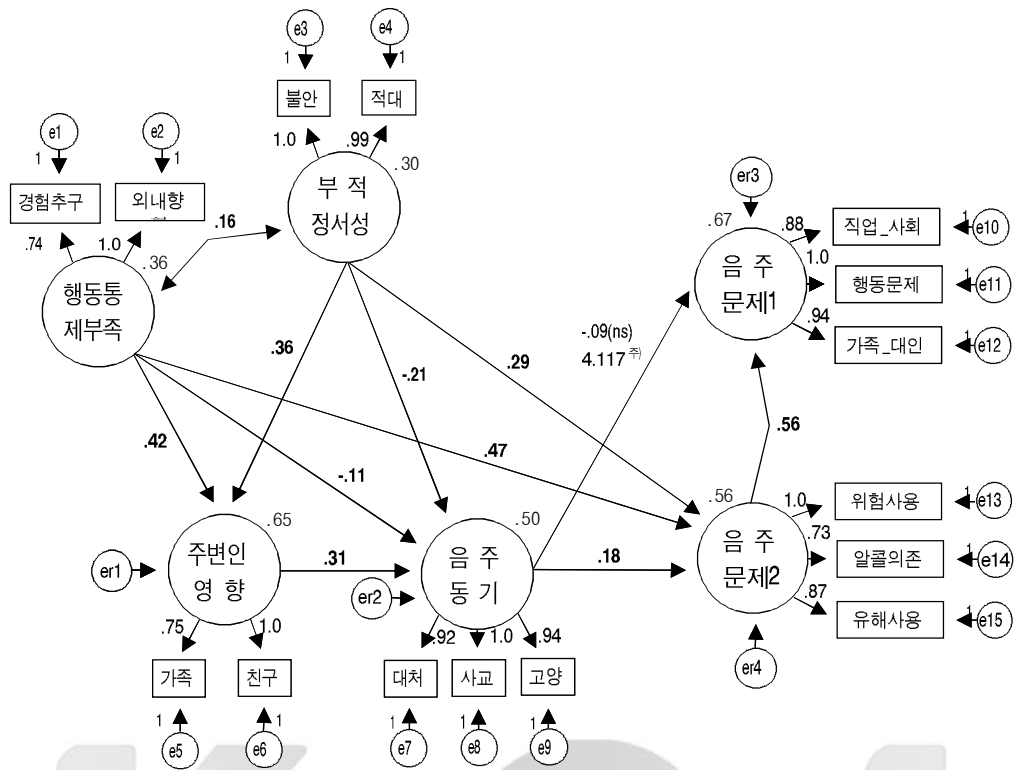
기본모형을 포함한 다섯 개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변인으로서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인접하는 주변인의 영향도 또한 증가하여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 기본모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 2와 3보다 우수하였다( $df=80$ ,  $\chi^2=134.966$ ,  $GFI=.916$ ,  $RMSEA=.068$ ). 즉, 연구모형 3과 4의 자유도 차이( $81-80=1$ )를 기준으로  $\chi^2$  차이값( $306.223-134.966=171.257$ )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근사 평균오차 제공근(RMSEA)이 .068로 괜찮은 부합도의 기준인 .08수준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모형 3에 비해 부합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표 3. 연구모형별 부합도 지수 비교

연구모형	df	$\chi^2$	GFI	CFI	RMSEA
모형 1	85	266.400	.878	.862	.092
모형 2	83	244.169	.884	.869	.090
모형 3	81	306.223	.874	.901	.101
모형 4	80	134.966	.916	.924	.068
모형 5	78	130.001	.911	.912	.082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최종모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림 2의 경로 추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경로에 비해 음주동기에서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음주집단별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경로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의 비율로 산정하는 결정비율지수(critical ratio index, 이하 C.R. index)를 이용하여 경로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음주동기에서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의 C.R. index가 .05 수준에서 기준값인 1.96을 초과하지 못하는 1.01이었다. 이는 그림 2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모형(연구모형 6)과 최종모

형의 부합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자유도의 증감에 따른 부합도와 경로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모형에 경로를 추가할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부합도는  $\chi^2$ 검증치와 비교부합치(CFI)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경로 수정지수는 Arbuckle(1998)의 추천 준거인 4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무의미 경로를 삭제한 연구모형 6의 부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 6의 GFI는 .911, RMSEA는 .075,  $\chi^2$ 값은 자유도 81에서 140.238로서 부합도 지수가 최종모형보다 오히려 낮았다. 자유도 차이(81-80=1)에 의한  $\chi^2$ 값

의 차이(140.238-134.966=5.272)에서도 .05 수준의 임계역인 3.84를 초과하였다. 이는 연구모형 6보다 자유도가 적은 최종모형이 음주 및 음주문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로계수의 수정지수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음주동기에서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 수정지수가 4.117로서 Joreskog와 Sorbom(1993)의 기준치인 5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Arbuckle이 권장하고 있는 기준치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림 2에서 음주동기로부터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 4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 중다 집단 비교분석

최종모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 4는 다섯 개 연구모형 중 가장 부합도가 높았으며, 개별 경로 추정치에 대한 부합도 비교와 수정지수에서도 신뢰로운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최종모형이 각기 다른 모집단의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음주집단의 음주 및 음주문제를 설명하는데 타당한 모형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섯 개 음주집단, 즉 남성, 여성, 대학생, 일

반성인 및 음주운전자에게 최종모형을 적용하여 각 집단별 모형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4는 음주집단별 최종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GFI와 CFI가 .9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합도는 적합한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과 음주운전 집단의 부합도 지수가 높았는데, GFI는 .919와 .923, CFI는 .915와 .914로서 적합한 모형의 부합도 준거인 .90을 초과하였다. RMSEA도 .062와 .059로서 괜찮은 부합도 기준치인 .08 수준을 크게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모형은 다양한 음주집단의 음주 및 음주문제를 설명하는데 타당하며 특히, 여성과 음주운전자 집단에게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음주 및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음주집단별로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비교하였다. 음주집단별로 최종모형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음주동기에서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정비율지수(C.R. index)는 없었다. 남성 음주집단의 경우 성격변인인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음주동기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 음주자의 경우에는 부적 정

표 4. 음주집단별 최종모형의 부합도 지수 비교

음주집단	df	$\chi^2$	GFI	CFI	PFI	RMSEA
남성(N=358)	80	159.973	.893	.884	.603	.088
여성(N=240)	80	123.223	.919	.915	.617	.062
대학생(N=212)	80	150.196	.906	.901	.605	.070
일반성인(N=238)	80	164.265	.882	.871	.594	.102
음주운전자(N=148)	80	113.217	.923	.914	.613	.059

서성에서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주변인의 영향이 음주동기를 경유하는 경로가 특징적이었다.

각기 다른 모집단의 특성을 가정할 수 있는 대학생, 일반인 및 음주운전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미쳤다. 행동통제 부족이 주변인의 음주행동과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적 정서성에서 음주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행동통제 부족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을 통해 음주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각각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 및 일반성인 집단과 달리 음주운전 집단에서는 부적 정서성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인석, 2001)에서 도출한 성격과 주변인의 음주영향 및 음주동기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가정하고 개별 부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와 음주의 심각성(음주문제 2)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재적 회귀분석과 AMOS 3.61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최종모형의 타당성은 중다 집단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이 주변인의 음주영향과 음주동기를 경유하고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통해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4가 가장 적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 4, 즉 최종모형은 남성과 여성 음주자, 대학생, 일반성인 및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집단비교분석에

서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 4의 변인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주변인의 영향과 음주동기 및 알코올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두 성격 차원이 알코올 사용의 취약성 요인으로서 알코올 민감성에서 개인차를 반영하며(Levenson, Oyama & Meek, 1987; Sher & Levenson, 1982), 알코올 사용에 따른 정서의 강화효과와 관련한 정적 및 부적 정서의 조절기제(Cooper *et al.*, 1995; Eysenck, 1967; Gray, 1972)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행동통제 부족을 측정하는 충동성, 활동성 경험추구 등이 주변인의 음주행동에 반응적(Curran *et al.*, 1997; Stacy *et al.*, 1991; 1992)이고 부적 정서성으로서 불안과 적대감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기본 구성인으로 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Kardum & Hudek-Knezevic, 1996)를 지지하는 것이다.

성격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음주행동이 음주동기를 통해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구 및 직장 동료의 음주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함으로써 알코올 효과에 대한 정적 혹은 부적 기대를 학습하게 되며, 그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인지동기적 요인이 알코올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Cumsille *et al.*, 2000). 즉, 술을 즐겨 마시는 사회적 모델로서 주변인의 음주행동에 노출되었을 때, 음주동기가 촉발되고 그 결과로서 알코올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취약성 요인으로서 성격과 환경적 위험요인으로서 주변인의 음주영향이 결합할 때, 일상적 음주행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요인으로서 성격과 주변인의 영향을 매개

하는 음주동기로부터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는데,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이르는 최종경로로서 알코올 사용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신행우, 1998; Cooper *et al.*, 1995; Schuckit, 1998)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음주동기가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 모두 대처동기가 음주정도를 통제할 이후에도 음주문제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나 고양동기와 사교동기는 그렇지 않았다.

선행연구(김인석 등, 2001)에서도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만이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의 신뢰로운 측정변인이었다. 하지만 그림 2의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연구모형 6이 자유도의 감소만큼이나 부합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음주동기가 알코올 사용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경로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동기에서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 추정치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음주 및 음주문제를 예측하기 위해 성격과 주변인의 음주영향의 매개변인으로서 음주동기를 통합적으로 조망한 모형구성은 타당한 것이다.

최종모형에서 음주동기로부터 음주문제 1에 이르는 경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성격이 음주문제 1에 이르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5는 자유도의 감소만큼이나 부합도를 크게 개선시키지 않았다. 이는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알코올 사용의 취약성 성격으로서 음주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Schuckit, 1998; Sher *et al.*, 1991; Stacy *et al.*, 1991)

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일반 음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알코올 사용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Sher 등(1999)이 지적하고 있듯이, 본 연구가 입원환자가 아닌 일반 음주자를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장기간의 알코올 사용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평가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종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대학생 일반성인 및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분석에서는 일부 집단만이 적합한 모형의 준거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괜찮은 수준(GFI=.882~.923, CFI=.871~.915, RMSEA=.059~.102)이었다. 특히, 여성 음주자와 음주운전자 집단의 경우, GFI와 CFI 모두 괜찮은 부합도의 준거인 .90을 초과하였으며, RMSEA도 좋은 부합도의 준거인 .50에 근접하였다. 이는 연구모형 4, 즉 최종모형이 일상 생활에서 음주 및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남성 음주 집단에서는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여성 음주집단에서는 부적 정서성과 주변인의 음주영향이 각각 음주동기를 통해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음주문제 2)에 이르는 경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독 전 성격으로서 남성에게는 행동통제 부족이, 여성에게는 부적 정서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위험요인과 음주동기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Cooper *et al.*, 1995; Johnson & Glassman, 1999; Sher *et al.*, 1991). 따라서 남성에게 있어서 소질적 특성이 음주 및 음주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비해, 여성 음주자는

주로 부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주변인의 압력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이 연계될 경우에 알코올 사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기 다른 모집단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대학생, 일반성인 및 음주운전자 집단의 경우, 행동통제 부족이 주변인의 영향과 음주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대학생과 일반성인 음주집단을 구분하는 경로를 보면, 전자는 부적 정서성이 음주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후자는 행동통제 부족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을 경유하여 음주동기를 유발하는 경로가 각각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운전 집단에서는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미치는 경로가 의미있었다.

최근의 청소년 음주가 매우 심각한 수준(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1999)이지만, 본 연구에서 연령별(~25세, 26~35세, 36세) 음주 및 음주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성인 집단이 보이는 특징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에서 알코올 사용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시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이라고 가정한다면,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초기 알코올 사용과 그에 따른 음주문제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사회관계의 확대와 역할 변화에 따라 대학생보다 일반성인이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쉽게 노출되고, 그러한 사회적 위험환경에서 알코올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격의 두 잠재변인 중 행동통제 부족이 음주 및 음주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 및 일반성인 집단과 달리, 음주운전 집

단이 보이는 부적 정서성과 주변인의 음주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선행요인으로서 성격이 알코올 사용과 음주문제의 신뢰로운 측정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Arnet, 1990; Donovan, 1990). 하지만 일부 연구(MacDonald, 1989; Reynolds, Kuncle & Cope, 199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음주운전집단이 보이는 특성이 문제성 음주에 따른 일상생활의 적응과정에서 수반되는 결과이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주변인의 지지를 추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몇 가지 제한점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의 최종경로라는 음주의 동기모형을 지지하며,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가 음주정도의 함수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성격과 주변인의 음주행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모형을 음주집단별로 적용한 결과에 근거한다면, 행동통제 부족과 부적 정서성이 초기의 알코올 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행동통제 부족은 일정 기간 이후의 음주 및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신뢰로운 변인일 가능성이 크다(Sher *et al.*, 1991; Stacy *et al.*, 1991). 그리고 주변인의 음주영향 역시 매우 강력한 설명변인으로서 음주동기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취약성 요인으로서 성격과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으로서 주변인의 음주영향이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단정하기 힘들다. 이들 두 선행요인의 조합이 현재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분명하지만(Curran *et al.*, 1997; Cumsille *et al.*, 2000),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집단에서 보이는

부적 정서성과 주변인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또한 그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음주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횡단적으로 접근한 방법상의 제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성격과 인접변인간의 전통적인 매개모형(Sher, 1997; Sher *et al.*, 1999; Stacy *et al.*, 1991)에 부합하지만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개별 변인의 기여도와 변화양상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93).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Data Mining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6(4), 75~95.
- 박영숙, 표미자, 김정선 (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의대지*, 18(4), 399~409.
-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9). '99 서울시 청소년 음주문화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V. 서울특별시.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 Arbuckle, T. (1997). *AMOS 3.61 user's guide*. SmallWaters Corp.
- Arne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1(6), 541~546.
- Babor, T. F., Fuente, J. R., Saunders, J., & Grant, M. (1992).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health care*. Geneva, WHO.
- Brook, J. S., Brook, D. W., Gordon, A. S., Whiteman, M., & Cohen, P.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
- Chassin, L., Pillow, D., Curran, P., Molina, B., & Barrera, M. (1993). Relation of parental alcoholism to early adolescent substance use: A test of three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3~20.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 George, W. H.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218~230.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1992). Stress and alcohol

-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Cox, M., & Klinger, E.(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umsille, P. E., Sayer, A. G., & Graham, J. W. (2000). Perceived exposure to peer and adult drinking as predictors of growth in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531~536.
- Curran, G. M., White, H. R., & Hansell, S. (1997). Predicting problem drinking: A test of an interactive social learning model.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1(8), 1379~1390.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onovan, D. M. (1990). Subtypes among risky and drunk drivers: Implications for assessment rehabilitation. In M. W. B. Perrine (Ed.), *Alcohol, Drugs and Traffic Safety-T89* (pp. 106~210). Chicago, Illinois, National Safety Council.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 London: Hodder & Stoughton.
- Gray, J. A. (1972). The psychophysiological nature of introversion-extraversion: A modification of Eysenck's theory. In V. D. Neblitsyn, & J. A. Gray (Eds.), *Biological Bases of Individual Behaviour* (pp. 182~205). New York: Academic Press.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Johnson, P. B., & Glassman, M. (1999).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ethni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 expectancies and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1), 64~69.
- Joreskog, K. G., & So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Scientific Software, Inc.
- Kardum, I., & Hudek-Knezevic,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Eysenck's personality traits, coping styles and mo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3), 341~350.
- Levenson, R. W., Oyama, O. N., & Meek, P. S. (1987). Greater reinforcement from alcohol for those at risk: Parental risk, personality risk and sex.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242~253.
- Macdonald, S. (1989). A comparison of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lcoholics responsible for impaired and nonimpaired collis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1(5), 493~508.
- McCarty, D., & Kaye, M. (1984). Reasons for drinking: Motivational pattern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9, 185~188.
- Reynolds, J. R., Kunce, J. T., & Cope, C. S. (1991). Personality difference of first time and repeat offenders arrested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289~295.
- Schuckit, M. A. (1998).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 environmental predictors of the alcoholism risk: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5), 485~494.
- Sher, K. J. (199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1(3), 247~254.
- Sher, K. J., & Levenson, R. W. (1982). Risk for alcoholism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tress response dampening effect of alcoh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350~368.
- Sher, K. J., Trull, T. J., Bartholow, B. D., & Vieth, A. (1999). K. E. Leonard & H. T. Blane(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 54~105). New York: Guilford Press.
- Sher, K. J., Walitzer, K. S., Wood, P. K., & Brent, E. E. (199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Putative risk factors, substance use, abuse,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27~448.
- Stacy, A. W., Newcomb, M. D., & Bentler, P. M. (1991).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moderating and direct effec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95~811.
- Stacy, A. W., Newcomb, M. D., & Bentler, P. M. (1992). Interactive and higher order effects of social influences on drug 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226~242.
- Williams, L. J., & Podsakoff, P. M. (1989). Longitudinal field methods for studying reciproc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oward improved causal analysi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 247~292.
- Windle, M. (1996). An alcohol involvement typology for adolescents: Convergent validity and longitudinal stabi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6), 627~637.

원고접수일 : 2003. 5. 28

게재결정일 : 2003. 6. 11



## The Effects of Personality, Social Pressure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In Seok, Kim

Samsung Tra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s

Yeon H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s an efficient prediction model of drinking & its problems based on Cooper *et al.*'s drinking motivation theory. For this, depending on previous study(Kim *et al.*, 2001), nine determinants have been derived to represent four independent latent variables such as behavioral undercontrol (extraversion, novelty seeking), negative affectivity (anxiety, hostility), social pressure(family & peer group), drinking motivation(enhancement, coping, social motive). In doing so, authors have compared five hypothesis models through a 'moderate regression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nd then found the most efficient prediction model. Finally authors have tested the validation of the proposed model based on the multi group analysis. As a result, the proposed prediction model shows that behavioral undercontrol and negative affectivity factors are directly linked to social pressure and drinking motivation. Further a drinking motivation factor is a proximal determinant of drinking indulgence and drinking related problems such as vocational, behavioral and familial problems, which is triggered by behavioral undercontrol, negative affectivity and social pressure. Also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prediction model can be applicable to many other groups such as male, female, university students, adults and drinking driv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are stronge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determined factors and drinking problems at least in the nonclinical sets.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for the future to examine the predictive value of the proposed model over time.

*Keywords* : personality, social pressure, drinking motivation, drinking problem,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